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

상상클럽



“볼 수는 없지만 보여주고 싶어”

회원 8명 월 1회 출사 작품활동
손으로 피사체 만지고 상상하며 촬영
내일 광주시청서 20여점 첫 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나래夜’ 행사 개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런 편견을 보란듯이 깨뜨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 꽃, 고목 등 자연의 풍경이 담긴 작품들은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상상클럽’은 시각장애인 8명(강금자, 김상하, 김준, 김철수, 김현균, 박정준, 오종배, 이재화)으로 구성된 사진동호회다. 이들은 매달 한번 무등산, 전복 순창 강천사, 해남 대흥사, 고창 선운사 등 광주, 전남·북 유명산으로 출사를 나가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동호회는 광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교육에서 시작했다.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김준(41) 강사가 핸드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볼 때가 됐다. 한번 사진동호회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을 꺼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 동호회는 미흡한 장비, 이동수단 부족 등 활동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소식을 들은 ‘한국사진방송’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 사람씩 짝을 이뤄 도와주며 야외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회원들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자신이 찍고 있는 대상과 촬영 후의 결과물을 볼 수 없다. 자원봉사자들이 말로 풍경을 설명해주거나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피사체를 느낀 후 마음 속으로 작품을 상상하며 촬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호회의 이름도 ‘상상클럽’이라고 정했다.

박정준(50) 회원은 “장애가 생기기 전 아날로그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즐겨했던 경험이 있다”며 “20대 후반 시력이 나빠진 후에도 계속 사진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동호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정준(59) 회원은 “사진을 찍은 후 주위에서 ‘잘 나왔다, 잘 찍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희열을 느낀다”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동호회는 17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제1회 시각장애인이 만들어 가는 나래夜’행사에 참가하며 첫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풍경 사진 20여점을 선보인다. 비록 스마트폰으로 찍은 작품이지만 회원들의 감각과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계



이재화 회원이 순창 강천사에서 찍은 고목.



무등산 장봉재에서 ‘상상클럽’ 회원들.



피사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강금자 상상클럽 회원이 손으로 꽃을 만지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회이다. 매년 정기전을 열고 다른 사진동호회들과 교류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과 동호회의 모습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며 일반인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릴 생각이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DSLR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사비를 털었고 후원도 모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진동호회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회원들도 사진 촬영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준 강사는 “광주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7400명이나 되지만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7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갑주)에서 주최한 ‘나래夜’ 행사가 1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하정용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강사로 나서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오카리나, 피아노, 색소폰 등이 연주된다.

또 오병인씨가 ‘안마 인생 20년’이라는 생활수기를 발표하고 한울림 합창단이 ‘오빠생각’, 이튿날은 우리 강산’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672-95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예술인회 발행 ‘소나무’ 겨울호 나왔다

(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소나무’ 겨울호 (통권 제13호·사진)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들여다보기’다.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의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의 방선규 전당장 직무대리 인터

뷰, 한희원 작가의 사진작가 강봉구 인터뷰 등을 통해 문화전당을 살펴봤다. 또 다른 특집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은 손광은(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장), 문순태(소설가), 김준태(시인)씨 등이 참여해 ‘제자들이 바라본 스승 김현승’ 등을 소개했다.

‘잃어버린 광주의 문화유산’에서는 향토사학자 김정호씨가 남광주 시장을 들여다봤고 ‘살아 숨쉬는 근대미술관’에서는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천경자의 인생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했다. 또 광주원로예술인회원들의 대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나의 대표작’에서는 김기수·김재형·이종일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7~18일 문예회관

발레리나 김주원 특별출연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이 17~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1997년부터 18년 동안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누적 관객수 5만명을 기록한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다.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코프스키와 러시아 무용가 마리우스 피티파가 탄생시킨 고전발레의 대표작으로 독일 작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

녀’와 함께 고전 발레의 3대 명작으로 꼽히는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꿈속에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환상의 세계로 떠나 모험을 떠난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바실리 바이노넬과 레브 이바노프 버전은 군무의 균형과 대비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선 굵은 안무가 특징으로 화려한 군무가 인상적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덴싱9’ 시즌 2, 3의 우승자인 윤원일(전 국립발레단)이 왕자 역으로 특별출연하며 스타 무용수 김주원(전 국립발레단), 박종석(전 유니버설발레단)이 스노우 파드무에서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돈홍 작 ‘부모님 그리워 읊다’

묵향에 담은 하서의 선비정신

‘39회 학정연우서회전’ 17~23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학정서에연구원 학정 이돈홍 원장의 제자들로 구성된 (사)학정연우서회(회장 유백준)가 17~23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2층 금호갤러리에서 ‘제39회 학정연우서회전’을 개최한다.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는 연우서회는 이번 전시에서는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선생 정신의 지위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서 김인후(1510~1560)의 선비정신을 살펴본다. 하서의 문집에서 고된 글귀를 서예 5채(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와 한글, 문인

화, 전각 등으로 작품화해 110점을 출품했다.

이돈홍 원장은 하서 선생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 ‘사친음’(思親吟)을 쓴 작품을 선보인다.

하서 김인후는 흥문관 부수찬(종6품)에 재직하며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가르쳤다.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정진했다. 문의 062-360-847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